

평민당 부총재

議會政治 88-12 창간호

박영숙

남녀평등 위한 입법추진

“ 박영숙 부총재는 국민 각자가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말한다. ”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

신민당총재를 지낸 朴順天 여사의 대를 이어 가는 우뚝한 여성정치인은 아직 없는것 같다. 정치가 여성에게 어려워서 가 아니라 정치인이 되는 과정이 더 어렵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이 열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평민당의 朴英淑 부총재는 어떤 상황에서 선출되었던 간에 평민당의 총재직무 대리를 했었고 지금은 제1야당의 명실 상부한 부총재이다.

아직은 정치능력이 미지수이나 여성들의 정치참여폭을 넓히는데 중요한 짐을 지고

있는 朴英淑의원(전국구)은 대단한 정치신념을 갖고 있었다.

『평민당에 여자화장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어요. 지난 총선거간에 나에게 총재권한대행을 시켰다던가 전국구1번을 준 일은 재미있는

평민당에 여자화장실이 있느냐고요?

우리 평민당은 비교적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일이예요. 우리 평민당은 비교적 여성의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라고 말하는 朴英淑부총재는 비록 1석의 여성국회의원 자리지만 여성들의 정치 참여 폭을 넓게 해석하려는 의도였다.

YWCA에서 30여년간 기층여성문제, 인권문제에 대한 민주화운동을 하다보니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평민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치의 첫출발이라고 말하는 朴의원은 자신도 전국구가 아니었으면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음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여성의 정계진출에 뚜렷하게 유리한 점은 없다. 정계진출을 하려는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여건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朴英淑부총재는 정치적인금과는 관계 없이 전국구1번이란 당의 배려로 금뺏지를 달 수 있었다.

朴의원은 당선이 확실한 전국구1번 마저도 처음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때문에 주저했었다고 밝힌다. 그러나 YWCA, 여연에서 일을 하다보니 여성의 문제도 정치일선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더 우세하여 정치를 선택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성들은 참정권이 남녀 모두에게 대등하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남성에 비해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여러 요소들 때문에 여성의 정치 참여는 활발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는 결정자체부터가 대단한 용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운동을 꾸준히 해 온 朴英淑부총재도 정치입문을 놓고 대단한 번민을 했었다.

朴부총재가 평민당을 선택한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평민당의 金大中총재의 부인인 李姬鎬여사는 朴부총재가 맡았던 YWCA전임 총무였다.

또한 76년 명동 구국선언으로 남편 安炳茂교수가 金大中총재와 함께 구속되었었다.

남편 옥바라지를 李여사와 함께 하다보니 金총재의 정치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金大中선생은 나라를 한번 바로 잡아야겠다는 욕망이 분명히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향하여 얻은 것은 사형이라는 절망적인 고통뿐이었습니다. 이런점에서 볼때 그의 욕망은 개인적인 욕망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었습니다』고 말하는 朴부총재의 두툼한 안경을 낀 얼굴에는 야당정치인 같은 깊은 신념이 넘쳐 보였다. 朴부총재는 다른 여성정치인보다는 여건이 좋다고 말했다.

학자인 安교수가 정치에 몰두할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함께 정치식견과 철학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란단.

남편의 외조를 자랑하는 朴부총재에게 安교수와 결혼하게된 연유를 캐 보았다. 기독교 가정에서 어릴때 세례를 받고 자라 성장후 이화여대를 졸업한 朴부총재는 YWCA에서 일했었다.

이때 각계의 교수를 초빙, 강연회를 열었는데 安교수도 그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민중신학자이며 총각교수의 진지한 강연을 들을때마다 朴부총재는 한발짝씩 安교수걸로 끌려가다 영원한 반려자가 되고 말았단다.

『우리 애아빠가 소유를 부정하는 사람이라서 결혼후 얼마동안은 이 혼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민가는 친구가 준 물건을 집에 들여 놓고도 한 두달간은 계속 꾸지람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도 쌀이나 연탄을 비축하면 크게 꾸중을 듣습니다』

여성정치인이라면 가정에서

**힘있는 자가 이기고 물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의 세계에서 사람의
의 생명을 중시하는 어머니의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
처하겠습니다.**

도 목소리가 남편보다 높을 줄 알았는데朴부총재는 예외였다. 安교수에 대한 호칭도 애아빠라 부르는 평범한 가정집 부인이고 남편에 대한 순종도 절대적으로 보였다.

『13년전에 지금 살고있는 집에 이사왔는데 집이 크고 마당이 넓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잘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여인네들의 마음과는 朴부총재는 판판이었다.

-YWCA, 여연등 재야에서 활약하실 때와 직접 정치를 하실 때와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심수 석방문제, 최루탄, 원폭피해자, 가족법개정등 과제로 본다면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접촉이 쉽다는 점은 다르죠. 과거엔 시정을 위해 기업주나 관청을 방문했을 경우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어요. 또 요구만 하고 목청만 높혀도 됐지만 이제는 발언이나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법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하겠지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적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

게 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말하는 朴의원은 아침 7시면 집을 떠나 8시 정기회의, 10시에 국회본회의에 참석한 후 민원처리와 농성현장등을 방문한다.

20년간 경직된 정치구조속에서 야당의원으로서 일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며『바쁜 일정때문에 남편과 아들 단 3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일주일에 2번 정도이고 사흘만에 집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한번은 남편이 불쑥 찾아와 열방 文東煥의원 보좌관을 불러놓고 요즘 나하고 있는 시간보다 文박사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두 사람이 너무 친한 것 같아 밤에 잠도 잘 안온다며 두 보좌관이 잘 좀 지켜달라고 당부한적이 있어요』

朴부총재는 남편의 이해와 성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다.

-여성의원으로서 특별히 하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직접 여성조직에서 활동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입법활동을 통해 여성들의 숙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가족법개정, 남녀고용평등법, 1백만 이상의 매춘여성들의 인권문제, AIDS등의 문제를 법제정

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부총재는 임시국회에서 여성으로서 관심이 큰 AIDS에 방책을 계속 따져 물어 회의가 끝나자 ‘에이즈의원’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처음엔 껄속말을 주고 받으며 웃어버리고 친척중 AIDS 걸린사람이 있느냐고 묻기도 하던 남성의원들이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한다.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은 모두 존경합니다. 올바른 의식 하나만을 가진 노동자도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참 용기라 생각합니다』

朴부총재는 힘있는 강자가 이기는 정치의 세계, 물질적 발전만을 추구하는 남성의 세계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의 시각,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어머니의 시각으로 복지과 핵문제, 환경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가정생활과의 양립, 경제적 부담으로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여성의 자리는 반드시 여성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敬〉